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전능하신 여호와여

(시편 29:1-11)

시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합니다. 시편에는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회의 가운데서 갖는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환희를 만끽하는 비결을 보여주기도 하며 실패한 중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같이 깊고 다양하고 도전적인 시들을 누가 다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편의 시를 이해한 줄 알았더니 다음 장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시편은 무궁무진한 진리로 가득합니다.

1. 비범한 시

시편 2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위대한 것과 하나님이 크신 것과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찬미의 소리뿐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9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대구법으로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를 약간 변형시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29편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Harry Ironside 목사님은 시편 29편을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9편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Spurgeon 목사님은 시편 29편을 주석하며 "이 시는 별이 반짝일 때 달빛으로 읽을 수 있고 시편 19편처럼 떠오르는 태양빛을 요구하듯 이 시는 사납게 날뛰는 검은 폭풍의 날개를 번갯불로 좌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시편 29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2.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1절).
다윗은 천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완전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사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2절).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3. 폭풍이 지나가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3절).
이것은 지중해에서 일어난 태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진다고 설명합니다. 3절은 이 모든 물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5-7절에는 폭풍이 레바논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의 시론은 한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바위보다 더 완고하고 산보다 더 높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녹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소멸하고 영감 있는 사랑과 헌신의 불꽃으로 우리를 태우십니다. 우리는 낮은 평지에 우뚝 솟은 산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7절은 여호와의 소리를 우렛소리와 연결시켜 빛의 섬광을 묘사합니다.

8-9절은 폭풍이 가데스 남쪽 사막을 지나갔으나 그 바람소리는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이 별거벗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시인은 이 모든 것의 원인 여호와이심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자연 만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에서 7번이나 반복된 '여호와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소리'가 시편 29편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창조 때에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망권세를 꺾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백향목보다 더 강박한 인간의 마음들을 녹여지고 깨지게 됩니다.

5절은 산에 영향을 주는 폭풍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바위보다 더 완고하고 산보다 더 높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고 녹일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소멸하고 영감 있는 사랑과 헌신의 불꽃으로 우리를 태우십니다. 우리는 낮은 평지에 우뚝 솟은 산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4. 땅에는 평화

폭풍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대왕으로 여전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동했으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십니다.

10절의 홍수는 대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폭풍이 오고 심판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4에서 예수님 출생을 예고한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100여 년 전 신학자 Franz Delitzsch는 시편 29편을 이 말씀으로 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 'Gloria in excelsis et in terra pax(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부르므로 시편 29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타난 사건만을 보지 않고 그 사건 속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뇌성벽력 속에서 오히려 위안을 받으며 위엄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찬양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U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어린이를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교육1국 어린이 주일에 다양한 행사 가져

교육 1국(국장 : 최학인 장로)에서는 5월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치부는 각 반별 찬양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유년부는 찬양예배 시간에 유년부 엔젤스와 유년부 찬양대가 출연하는 뮤지컬을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부는 교육1국의 말형

답게 그동안 결석이 잦았던 친구와 새로운 친구를 초청하는 친구초청 총동원 주일로 한티공원에서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어린이들의 구김없는 밝은 웃음소리가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도록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자.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급하다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토록

치솟는 고(高)유가로 온 세계가 위기 의식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

쓰지 않는 조명은 물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나 대형버스를 운행함으로 사회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컴퓨터 전원 끄기, 냉난방 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연구 실천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고 낭비되고 있는 유인물 제작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지기로써 자원고갈을 염려하기 전 주신 자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제6회 교구 찬양대회 불꽃튀는 열기로

5월12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리는 교구찬양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교구별 준비상황과 작전이 서서히 노출됨으로 그 열기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교구마다 특성있는 준비를 하고 비밀리에 연습을 하고 있는 각 교구 연합모임이 주중에 계속되고 교회 내외에서 맹렬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교구는 인원동원에 어린이와 연로하신 환우들까지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또 다른 교구는 율동이나 특이한 유니폼으로 시선을 집중시키

는 전술도 마련하고 있다.

교구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는 이미 자유곡을 접수 완료했고 우승 컵을 준비하고 시상품 마련도 마친 상태다.

심사위원 발표는 극비리에 붙여 있기 때문에 당일에야 알게 될 것 같다. 찬양대회를 통해 교구 가족의 단합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한다.

2006년 봄시즌 화요 정오음악회

5월2일(화) 정오, 첫 순서로 박혜원 오르간독주회 열려

5회째를 맞이하는 화요정오음악회 봄시즌 일정이 모레(5월2일 화요일) 박혜원 선생의 오르간 독주회로 열린다.

성도와 이웃을 위한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우리교회가 이웃 주민과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 수준 높은 음악을 들으며 좋은 여가의 시간으로 혹은 전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요 정오음악회는 이 즈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르간 음악의 특성상 좀처럼 외부에서 접하기 힘든 만큼 오르간 연주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화요 정오음악회에 많은 성도와 주민의 참석을 바란다.

<박혜원 선생>

- 예원학교 및 서울예고 졸업
- 연세대 교회음악학과 졸업
- 리움 국립고등음악원 졸업
- 제7회 Toulouse les Orgues 국제 오르간 페스티벌 초청 연주를 비롯한 Paris, Lyon, Toulouse, Reine 중심으로 수차례 연주활동
- 현 연세대, 장신대 출강



대학부 1일 수련회

5월 4일(목) 오후 7시 701호에서

대학부(부장 홍성주 장로)는 1일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1일 수련회 주제는 "Praise the Lord"이며 대학부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새로운 마음과 신앙으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고자 한다.

모든 대학부원들은 가능한 수련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세계 평 · 화 음악회 녹화중계

5월13일(토) 오후 7:30 CTS TV에서

지난 4월 19일(수) 우리교회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로 열렸던 '세계 평 · 화 음악회'가 CTS TV(기독교 TV, 케이블 채널 42)에서 5월1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다. 성도들의 많은 시청바란다.

한국교회 대각성 부흥운동 영상자료 상영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전도위원회는 오늘 찬양예배를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준비하며 예배 시작 전 오후 4시부터 30분간 1907년 한국교회 대각성 부흥운동 영상자료를 상영한다.

베들레헴 찬양대 체육대회

베들레헴 찬양대 체육대회가 5월5일(금) 베델하우스에서 열린다.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 찬양대원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 것이다.

금주의 성구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 28:6-7)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Matthew 28:6-7 [NIV])

만민에게 전도- 안드레·루디아 전도회 농촌전도봉사활동 후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김상태 집사(안드레 남 선교회장)

안드레와 루디아 전도회가 지원하는 인동의 안흥 교회는 서울에서 4시간 거리였다.

금년부터 우리교회는 전도회 별로 더욱 정예화 하여 수시로 파송하여 활동하도록 전도전략을 세웠기에 임원진이 먼저 전도지를 답사하였고 전도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4월 22일에 파송할 것을 정하고 그곳 교회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였다.

몇 년 전 서울에서 파송한 어느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갔다는 것이다. 농촌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떠들다가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불신자는 고사하고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불쾌한 마음에 도시교회가 전도하러 오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다.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지만 교회의 방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가득 찼다. 지난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이종윤 목사님께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는데 보냄과 같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 가슴이 답답했지만 기도를 해 주시

는 동안 용기가 생겼다.

우리는 차중에서 최종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들에게 전해 줄 것은 선물이나 의료나 이미용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알고 용기를 냈다. 교회에 도착하니 초청을 받은 마을 분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들은 어머니에게 딸은 아버지에게 가듯 함께 앉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과 영화를 보고 말씀도 들었다. 식사를 할 때도 옆에서 함께했고 의료행위와 이미용을 할 때도 우리는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손을 잡은 채 그분들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은 주민을 찾아서 공손하게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치료와 머리를 손질해 드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가히 집작이나 할 수 있었으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루였다.



어린이 주일

아이에게 배우는 신앙

한영 집사(12교구)

태웅, 태준 연년생 아들의 엄마인 저는 지난 부활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초등학교 1년생인 큰 아들 태웅이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금식에 동참하겠다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교실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인 저는 태웅이에게 금식은 조금 더 큰 다음에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루 굶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배가 고파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했던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 참으로 부끄럽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성 금요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태웅이는 금요일 방과 후에 축구가 있어서 금요일에 점심을 먹지 않으면 너무 기운이 없을 것 같아 목요일에 미리 했다고 합니다. 태웅이는 할아버지이신 이갑진 장로님을 닮아서 축구를 매우 잘한답니다.

태웅이의 말을 들은 우리 부부는 너무 놀랐고 한편 민망하여 금식일인 다음 날 부부가 함께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했고, 막내 태준이도 당당히 자기는 밥은 먹어야 하겠고 대신 간식을 먹지 않겠

다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는 금식으로 준비한 특별한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모태신앙으로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했고 그렇게 순탄한 신앙생활을 해서인지 아이들의 신앙도 저절로 자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아이 곁에 늘 함께 계심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요.

그간 새세대부모 모임 자모회장을 하며 지금은 새세대 부모 학교의 진행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금식을 통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안일한 자신의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아이를 위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할 때 태웅이는 이미 주의 어린이로서 주님께 붙잡히며 되어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평생에 임마누엘 하여주시옵소서!

나의기도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혜진 (청년부, 임마누엘 찬양대)



날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회사에서 일이 많아 입버릇처럼 '쉬고 싶다'고 불평하던 때였습니다. 그 날도 아침부터 외부 미팅이 여러 건 잡혀있었고, 전날 눈이 와서 길이가 미끄러웠

는데도 정장에 구두를 신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관계사 손님께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 잠시 외출을 했는데 그만, 가게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입술이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좋은 병원의 의료진을 만나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꽤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을 꼼짝없이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시집도 약간 처녀가 얼굴을 다쳐서 어떻게 하나요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쉬는 동안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날 어떻게 만나고자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과 사람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즐기는 나를 하나님은 조용히 독대하시기를 원했고, 쉼 없이 달리던 내가 하나님 사명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신발 끈 고쳐 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스스로는 만들지 못했을 영혼의 안식을 누렸고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처의 회복이 빨랐고, 다친 부위 또한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여서 무사히 시집은 갈 수 있겠다고 놀림 아닌 놀림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돌아켜보면 나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일상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돕고 계셨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생각하니 내가 기억을 못했을 뿐, 늘 나와 동행하셨고, 사건 사건을 통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고 울었던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때마다 나를 다시 보듬어 안아주시고 십자가에게까지 달려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주님, 세상에 너무 바쁘지 않아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수요야간 전도

중등부 교사·학생 수요야간 전도팀 활발

전부터 수요2부 예배 후 스테판 회원들이 노방전도를 해왔지만 한 달 전부터 교회 옆 한티공원에는 수요일 밤마다 더욱 향기가 납니다.

항상 삭막할 것 같은 그곳에 어느 날부터 꽃 같은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커피를 마시며 학생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는 포레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와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차나 라면을 끓여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도를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등부 부감집사님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영상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에 나오는 성화 등의 영상이 비치면 한껏



호기심어린 눈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예 이동식 스크린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야외 노천극장이라도 온 듯 착각할 정도로 대형 화면을 비추주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티공원에 매주 수요일마다 야외극장을 설치해 주심으로 서울 강남의 명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복음 전도의 양태도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가장 바른 신학의 바탕위에 말씀 중심의 교회임을 자부하기에 전도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사명까지 지고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 여러분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되도록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고등부 형들과 초등부 동생들까지 합류한다면 공원은 더욱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만나홀 커피자판기 설치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식당(만나홀)에서 자유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였다.

주중에는 한 잔에 200원 주일에는 무료다. 단, 1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기계제작 성능상 작동하기 때문에 자판기 옆에 동전을 준비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케 된다.

따라서 각 호실에서 커피 등 음료는 마시지 말고 반드시 만나홀에서만 드시기 바랍니다.

1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일 자판기 사용을 위해 교회에 헌납해주기 바랍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4일(목) 서울여대 이사회, 5일(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동문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정홍도 집사 김병애 집사 역삼2동 774번지 우림캐슬빌 T. 567-7132
- <전시회> 나연신 강석우 2인전: 5월3일(수)-18일(목) 오후 5시 Gallery AKA Seoul(낙원동)
- <개업> 오준기 허화영 성도(13-29) 해외 직수입 스포츠 전문매장 마이스즈 안양점 개업 T. 031-466-5686
한충현 집사(2교구) JB Systems
(수학전문 인터넷강의네트워크)
이동만 집사(2교구) 호도스(남성기성복)
팔레스 호텔 2호점
박충구·문승순 집사 엘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T. (031) 421-0009

- 주간식당봉사: 빌립 선교회(4월30일) 안드레 선교회(5월7일)
- 금주의 식사제공: 주영도 집사 오가연 집사 (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어린이주일

유년부 엔젤스

유수진(유년부 교사)

“선생님, 오늘은 뮤지컬 연습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서 매 주일 받는 질문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연습을 할 때마다 뮤지컬 연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보채기도 합니다.

2006년 5월 7일 어린이주일!

이 즐거운 잔치날에 유년부 아이들이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당신의 오병이여는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한편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날



어린 아이들이 하게 되는 공연이어서 그 의미도 뜻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연은 어린이들이 하는 공연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의 극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사와 기쁨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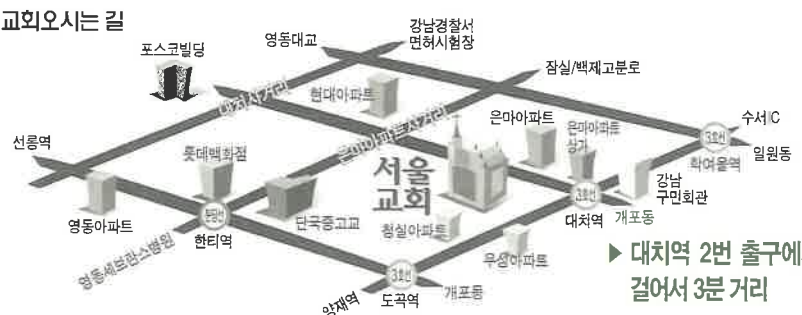
공연 날까지, 이 공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기 위하여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설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